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309호)

마이다스 액티브 증권 투자회사(주식)

2009년 10월

Fund Facts

투자 목적	적극적인 종목선택과 자산배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03-06
펀드 규모	275 억원
총보수	A1-1%선취+연1.74% / C1-연2.78%
환매수수료	A1-30일미만,이익금의70%/30~90일,이익금의30% C1-90일미만,이익금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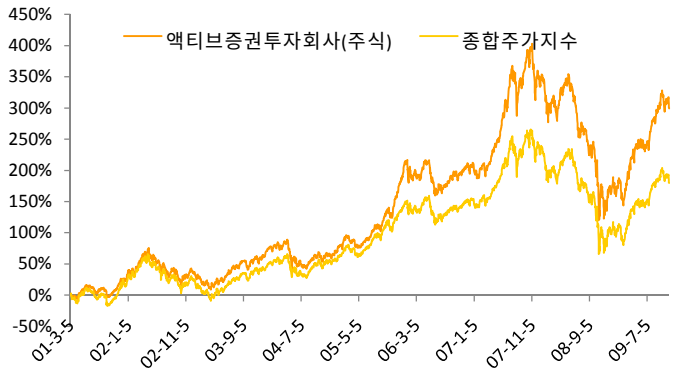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액티브증권투자회사(주식)	-4.23%	5.62%	21.28%	52.97%	298.46%
종합주가지수	-5.53%	1.50%	15.43%	42.01%	178.22%
초과수익률	1.30%	4.11%	5.84%	10.96%	120.24%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C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1.03.06~2009.10.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0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4.23%였으며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5.53% 하락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대비 1.30%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0월 한달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철강, 은행, 건설, 자동차 등 수익률이 양호했던 업종의 편입비중이 높았고, 넥센타이어, 성광벤드, 웅진코웨이, 제일기획 등 상대성과가 좋았던 개별종목을 보유하였던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증권, 해운, 조선업종에 대한 주식편입비중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황

10월 주식시장은 그 동안의 가파른 시장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지수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1) 그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던 양호한 경제지표 및 선행지표가 3분기 고점 형성 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2) 각국의 출구 전략 가능성에 따른 유동성 둔화 우려 3) 기업의 양호한 실적 및 긍정적인 전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는 관점 등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높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의 월말 매수둔화와 주식형 펀드환매에 따른 기관들의 순매도가 이어졌고 , 업종별로는 기업실적과 외국인 매수가 돋보였던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내수업종의 성대성과가 좋았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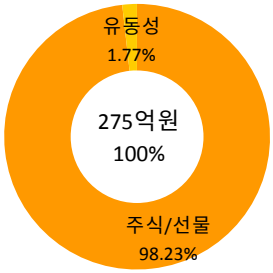
현재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7% 이상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소폭의 선물매도 헷지를 통해 실질 주식편입비를 85-9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도 제한 된 범위내 지수 등락의 반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산배분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종목선택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LG디스플레이, 오리온, 성광벤드, 다음, 고려아연, 중국원양자원 등을 신규편입하고 녹십자,삼성SDI, NHN, 현대산업, 우리투자증권, 현대하이스코, LG텔레콤, 성우하이텍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은 GS건설, 성광벤드 오리온, 롯데쇼핑, 웅진코웨이, 제일기획, 현대건설, POSCO, 우리금융, 현대해상, 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등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 OCI, LG디스플레이, 대우증권, LG, SK에너지,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LG전자, 한화,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09.10.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09.08.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48.49%)

삼성전자	15.25
POSCO	5.71
현대차	5.06
LG전자	4.11
신한지주	3.70
현대제철	3.40
KB금융	3.16
한국전력	2.94
하이닉스	2.59
KT	2.57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